

Session 14 The Commissioning of the Twelve Apostles (Mt. 10) **제 14 강 열두 사도를 세워서 보내심 (마 10 장)**

I. INTRODUCTION

도입

- A. In this session, we will look at Jesus sending out the apostles (Mt. 10:1-42; Mk. 6:7-13; Lk. 9:1-6).

이 강의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열 두 사도를 세워서 보내는 부분을 볼 것이다 (마 10:1-42; 막 6:7-13; 눅 9:1-6).

- B. This probably occurred in Galilee in early AD 29, about one year before Jesus' death. Matthew 10 reported Jesus' message in far greater detail than did Mark 6 or Luke 9. This is the second long message in Matthew's gospel—it is often referred to as "The Missionary Discourse." It provides principles for those who are engaged in much travel to do the missionary work of the kingdom.

이 일은 아마도 AD 29 년 초반에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며, 예수님이 죽기 1 년 전쯤의 일이다. 마태복음 10 장은 마가복음 6 장이나 누가복음 9 장보다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훨씬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로 긴 메시지이며, "선교 강화 혹은 전도 강화"로 불리기도 한다.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역 여정을 가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원리들을 제공한다

- C. Initially the instructions (Mt. 10: 5-15, 23) were to the Twelve as they first preached in the cities of Israel. Later the scope of the message was broadened to include the ongoing mission of the Church to reach the nations or Gentiles (Mt. 10:18, 22), so this message is important for today. Jesus presented principles that are for His servants throughout Church history doing the work of ministry.

예수님은 초반에 가르치신 부분은 (마 10:5-15, 23) 열두 제자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위한 것이었다. 이후에 이 메시지의 범위는 열방과 이방인을 향한 교회의 선교 사역까지 확장되어 있기에 (마 10:18, 22), 따라서 이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중요하다. 예수님은 교회사 전체를 통해 그분의 종들이 사역하며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가르쳐주셨다.

II. THE APOSTLES WERE GIVEN NEW AUTHORITY (MT. 10:1-8)

사도들에게 새로운 권세를 주시다 (마 10:1-8)

- A. The context for the commissioning of the apostles: Jesus' third and final tour of Galilee probably occurred in late AD 28 (Mt. 9:35-38; Mk. 6:6). He called them to pray for laborers for the harvest.

사도들을 보내시는 일의 배경: 예수님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갈릴리 여정은 아마도 AD 28 년 후반부였을 것이다 (마 9:35-38; 막 6:6). 그분은 그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했다.

³⁵*Then Jesus went about all the cities and villages...preaching...and healing every sickness...* ³⁶*But when He saw the multitudes, He was moved with compassion for them, because they were ...like sheep having no shepherd.* ³⁷*Then He said..., "The harvest truly is plentiful, but the laborers are few.* ³⁸*Therefore pray the Lord of the harvest to send out laborers into His harvest."* (Mt. 9:35-38)

³⁵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³⁶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³⁷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³⁸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 9:35-38)

- B. Jesus commissioned the Twelve (Mt. 10:1-4; Mk. 6:7; Lk. 9:1-2) This is a part of Jesus' answer to sending out workers for the harvest (Mt. 9:38). The Twelve were just the beginning of workers that Jesus sent to continue His ministry by proclaiming the kingdom message and releasing His power.

예수님은 열두 사도들을 보내셨다 (마 10:1-4; 막 6:7; 눅 9:1-2). 이는 추수를 위한 일꾼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의 한 부분이다 (마 9:38). 이 열두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분의 사역을 이어가는 일꾼들을 보내시는 것의 시작이었다.

¹And when He had called His twelve disciples to Him, He gave them power over unclean spirits, to cast them out, and to heal all kinds of sickness...²Now the names of the twelve apostles are these: first, Simon, who is called Peter, and Andrew...James...and John his brother; ³Philip and Bartholomew; Thomas and Matthew...James...⁴ Simon...and Judas Iscariot... (Mt. 10:1-4)

¹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²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³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⁴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 10:1-4)

1. The Scriptures never suggest that the disciples had healed the sick before this time. This is another aspect of Jesus' unprecedented power. Not even Moses or Elijah had authority to impart power like this to their disciples. Elijah's power was imparted to Elisha only after he was taken up to heaven.

성경은 이 시점 전에는 사도들이 병든 자들을 고친 것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가진 전에 없던 권능의 또 다른 한 부분이었다. 모세나 엘리야도 이와 같은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여할 권세가 없었다.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부여된 것은 그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였다.

2. Later, Jesus commissioned them to reach all nations (Gentiles) and emphasized that all believers can preach the gospel, heal the sick, and cast out demons (Mt. 28:18-20; Mk. 16:17-20). The mission to the Gentiles was mandated following the resurrection of Jesus.

이후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열방으로 (이방인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음을 말씀하셨다 (마 28:18-20; 막 16:17-20).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 명령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주어졌다.

¹⁷And these signs will follow those who believe: In My name they will cast out demons; they will speak with new tongues...¹⁸they will lay hands on the sick, and they will recover.” (Mk. 16:17-18)

¹⁷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¹⁸ ...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막 16:17-18)

3. **Apostle:** The word “apostle” speaks of one who is *sent with authority* to represent a dignitary. The Twelve had been traveling with Jesus, but were now given a new official title— apostles.

사도: “사도”라는 단어는 높은 자에 의해 권능이 부여되고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한다.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었지만, 이제 사도라는 새로운 공식 호칭을 받게 되었다.

4. Scripture provides four lists of the apostles (Mt. 10:2-4; Mk. 3:16-19; Lk. 6:13-16; Acts 1:13).
성경 말씀은 사도들의 이름 전체를 네 번 언급한다 (마 10:2-4; 막 3:16-19; 눅 6:13-16; 행 1:13).
5. Choosing twelve apostles corresponds to the twelve tribes of Israel (Mt. 19:28), emphasizing their messianic kingdom purpose.
사도가 열두 명 뽑힌 것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일치하며 (마 19:28), 이를 통해 메시아의 통치 때의 이들의 역할을 볼 수 있다.
6. Mark added that Jesus sent them out “two by two” (Mk. 6:7). He sent them out in twos to provide relational support, protection, and accountability.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음을 말하고 있다 (막 6:7). 그분은 그들을 둘씩 보내어 관계적으로 서로를 돕고 보호하며, 안전하게 지키게 했다.
⁷*And He called the twelve to Himself, and began to send them out two by two... (Mk. 6:7)*
⁷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막 6:7)

III. JESUS GAVE SPECIFIC INSTRUCTIONS FOR TRAVELING (MT. 10:5-15)

예수님께서 여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심 (마 10:5-15)

- A. Jesus preached this “commissioning message” to prepare them for their new mandate.
예수님은 이 “파송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임무에 대해 그들을 준비시키셨다.
- B. Initially their call was to go only to Israel (10:5-6). Only Matthew includes this. Later, Jesus addressed their calling to reach the nations in Gentile lands too (Mt. 10:18; 28:19).
처음에 그들의 부르심은 오로지 이스라엘을 향해 가는 것이었으며 (10:5-6), 마태복음만이 이 내용을 담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후에 이방인 땅을 향한 이들의 부르심을 말씀하셨다 (마 10:19; 28:19).
⁵*These twelve Jesus sent out...saying: “Do not go into the way of the Gentiles, and do not enter a city of the Samaritans. ⁶But go rather to the lost sheep of the house of Israel. (Mt. 10:5-6)*
⁵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⁶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 10:5-6)
- C. Jesus was highlighting God’s faithfulness to fulfil His covenant promises to Israel, confirming that Christianity is neither a “different” religion, nor a “Gentile” religion. Paul emphasized that his ministry was offered to “the Jew first and also the Gentile” (Rom. 1:16; 11:11-12, 25-26; Acts 13:46; 18:6; 19:9; 28:25-28). God brings salvation to the Gentiles as branches grafted onto the “tree of Abraham.”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며, 기독교가 “다른” 종교나 “이방인의” 종교가 아님을 명확히 말씀하셨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함을 강조했다 (롬 1:16; 11:11-12, 25-26; 행 13:46; 18:6; 19:9; 28:25-28).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이라는 나무”에 접붙이심으로 이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
¹⁶“...salvation for everyone who believes, for the Jew first and also for the Greek.” (Rom 1:16)

¹⁶ ...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롬 1:16)

1. It was important that the Church be birthed in a Jewish context for the Romans 11 dynamics at the end of the age—for Gentiles to have a sense of gratitude towards the Jewish people.

교회가 유대적인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중요하며, 로마서 11 장의 일들은 마지막 때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방인들은 유대 민족에게 받은 은혜를 인지해야 한다.

2. Jesus coming to Israel emphasized God’s faithfulness to His covenant promises and to the continuity of His purposes with Israel. God showed His love for Israel in sending Jesus to them. Jesus is first Israel’s savior; Jewish Christians are faithful to Israel’s prophetic hopes.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목적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에 대해 충성되게 소망을 가지고 있다.

- D. Matthew wrote of the Gentiles receiving salvation (Mt. 2:1-12; 3:9; 8:10-11; 10:18; 12:18; 15:21-28; 22:1-10; 21:43; 24:14; 28:19). There was controversy about going to the Gentiles even after the resurrection (Acts 11:1-18; 15:1-20).

마태복음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마 2:1-12; 3:9; 8:10-11; 10:18; 12:18; 15:21-28; 22:1-10; 21:43; 24:14; 28:19).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했다 (행 11:1-18; 15:1-20).

1. The Twelve were probably not prepared theologically or spiritually to successfully engage in the cross-cultural evangelism of Gentiles—as seen when John wanted to call fire on a Samaritan village (Lk. 9:52-56).

열두 제자들은 아마도 신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잘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 마을에 불을 내리길 원했던 것에서 볼 수 있다 (눅 9:52-56).

2. It is possible that, in the initial stages of their mission, Jesus did not want them to deal with the additional opposition that would come from Jewish leaders towards Jews who related to Gentiles and Samaritans.

아마도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에서 그들이 또 다른 반대에 부딪치지 않기를 바라셨을 수도 있다. 즉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에게 가는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일이었다.

- E. The apostles were to preach the same message as John the Baptist (Mt. 3:2) and Jesus (Mt. 4:17), with demonstrations of power to validate and express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이 사도들은 세례 요한과 (마 3:2) 예수님의 메시지와 (마 4:17) 동일한 것을 전하며, 권능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냈을 것이다.

⁷And as you go, preach, saying,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⁸Heal the sick, cleanse the lepers, raise the dead, cast out demons.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Mt. 10:7-8)

⁷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⁸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 10:7-8)

1. They were to travel to many places preaching and doing miracles. All these miracles except healing lepers are recorded in Acts (3:1-10; 8:7, 13; 9:36-43; 14:8-10; 19:13-16; 20:7-12).

그들은 많은 장소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을 것이다. 문둥병자를 고치는 모든 기적들은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다 (3:1-10; 8:7, 13; 9:36-43; 14:8-10; 19:13-16; 20:7-12).

²⁸If I cast out demons by the Spirit of God, surely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Mt. 12:28)

²⁸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 12:28)

2. **Freely give:** They were not to charge for their “healings” because they freely received grace.

거저 주라: 그들은 “치유를 하고” 돈을 받아서는 안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이었다.

IV. WHAT TO TAKE ON THEIR MISSIONARY TRIPS (MT. 10:9-15)

선교 여행에 가지고 간 것들 (마 10:9-15)

- A. Jesus gave instruction about what provision they should take (Mt. 10:9-15; Mk. 6:8-11; Lk. 9:3-5).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가야하는지 말씀하셨다 (마 10:9-15; 막 6:8-11; 눅 9:3-5).

⁹Provide neither gold nor silver...in your money belts, ¹⁰nor bag for your journey, nor two tunics, nor sandals, nor staffs...¹¹“Now whatever city or town you enter, inquire who in it is worthy, and stay there till you go out. ¹²And when you go into a household, greet it. ¹³If the household is worthy, let your peace come upon it. But if it is not worthy, let your peace return to you.

¹⁴And whoever will not receive you nor hear your words, when you depart from that house or city, shake off the dust from your feet. ¹⁵Assuredly, I say to you, it will be more tolerable for the land of Sodom and Gomorrah in the day of judgment than for that city! (Mt. 10:9-15)

⁹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¹⁰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 ¹¹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¹²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¹³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¹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¹⁵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 10:9-15)

- B. The principles are *simplicity* (to travel lightly without being encumbered), with a sense of *urgency* about their mission and with *dependence* on God and *connection* to the people they serve.

여기에 나타난 원리는 단순함과 (거추장스러운 것 없이 가볍게 여행함), 그들이 맡은 임무의 위급함,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다.

- C. The Church throughout history was not called to fulfill literally each command given for that time (before the resurrection), but we are called to embrace the principles indicated here.

이후의 교회는 이 때 주어진 각 명령을 문자적으로 모두 성취해야 한다기보다, 여기에 나타난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 D. **Gold in their money belts:** They were not to take enough money to sustain their long outreaches.

전대에 금이나: 그들은 긴 사역 여정을 다 마칠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

1. Jesus did not want them to accumulate money during their trips—this may have been to maintain pure motives in going on trips, as well as demonstrating their sincerity to the people they ministered to and for their safety from thieves while traveling on dangerous roads with a lot of money on them.

예수님은 그들이 여정 중에 돈을 쌓지 않기를 바라셨다. 이는 이 사역을 다니는 동안에 깨끗한 동기를 가지기 위함이며, 그들이 사역하는 이들에게 진실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가지고 위험한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였다.

2. One temptation associated with connecting money with preaching is that the preacher often adapts their message to make their supporters happy.

돈이 설교와 연결될 경우의 유혹은, 설교자가 자신을 후원하는 이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 메시지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다.

3. The Scripture teaches that those who minister spiritual things are to receive financial blessing from the many (Deut. 25:4; 1 Cor. 9:4-18; 2 Cor. 11:7; 1 Tim. 5:18; 2 Thes. 3:9; 3 Jn. 5-8).

성경은 영적인 것을 섬기는 이들이 많은 이들로부터 재정적인 축복을 받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신 25:4; 고전 9:4-18; 고후 11:7; 딤후 5:18; 살후 3:9; 요삼 5-8).

- E. **Nor two tunics or sandals:** Jesus was telling them to not bring *extra* sandals—Luke clarified that they are not to “carry” sandals and staffs (plural) instead of forbidding them to “wear” sandals (Lk. 10:4). Their essentials—food and extra clothing—was given to them by those who accepted their ministry in the places where they traveled to minister.

두벌 옷이나 신이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분의 신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신발이나 지팡이들(복수)을 “들고 다니지” 말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으며, 신발을 신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눅 10:4). 그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즉 음식과 여분의 옷들은 그들이 방문한 지역에서 그들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공급했다.

- F. These specific restrictions were temporary and not required in the hostile era of the post-resurrection Church. Hospitality among fellow Jews in the towns of Israel was common, but such hospitality was not expected when they were traveling in the Gentile lands.

이 특정한 제한 사항들은 일시적인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교회와 같은 적대감이 심한 시대에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이스라엘 마을에서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환대를 받는 일은 일반적이었지만, 이방 땅을 다닐 때는 이 같은 환대를 받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³⁵ He said..., “When I sent you without money bag, knapsack, and sandals, did you lack anything?” So they said, “Nothing.”³⁶ Then He said to them, “But now, he who has a money bag, let him take it, and likewise a knapsack; and he who has no sword, let him sell his garment and buy one.” (Lk 22:35-36)

³⁵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³⁶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겹옷을 팔아 살지어다 (눅 22:35-36)

- G. **Inquire who is worthy:** Jesus give instruction on how they were to secure their lodging (10:11). When entering a town, they were to “search out” people who were “worthy.” They were to stay in the homes of “worthy” hosts, not always the most luxurious home or the people who are most connected to open more doors. A worthy person was one who received their message about Jesus. A host was deemed “unworthy” by not continuing to support Jesus. Leaving their house, as an ambassador of Jesus, would cause a certain measure of blessing to leave.

합당한 자를 찾아냄: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머물 곳을 어떻게 찾을지를 알려주셨다 (10:11). 그들은 마을에 들어갈 때, “합당한” 자를 “찾아내야” 했다. 그들은 “합당한” 집 주인의 집에 머물러야 했으며, 이곳이 꼭 가장 부유한 집이나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이들의 집일 필요는 없었다. 여기서 합당한 사람이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이들이었다. 집 주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사람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예수님의 대사인 그들은 집을 떠날 때, 그 집을 축복했다.

- H. **Stay there till you go out:** They were to remain in the same house to avoid the negative dynamics of jealousies, were a better offer to come along, and it provided some accountability for the traveling disciple whose real character was seen by the host family by being there for more than a few days.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들은 더 나은 제안이 있더라도 동일한 집에 계속 머물러서 질투 등으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다. 이는 여정을 다니는 사도를 신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었는데, 며칠 이상을 머물게 되며 집 주인이 이 사도들의 진짜 성품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I. **Shake off the dust:** It was customary for a devout Jew to shake the dust from their feet when returning from a Gentile region to symbolically remove the “pollution” of pagan lands from them. Paul invoked this prophetic action on occasion when his message was rejected (Acts 13:51; 18:6).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독실한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서 돌아올 때 일반적으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렸으며, 이는 이교도 지역의 “오염된 것”을 제거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이들에게 이 예언적인 행동을 했다 (행 13:51; 18:6).

- J. **Greet a worthy household:** The apostles released a powerful blessing on a family who honored God’s work in the apostles—it was much more than a casual greeting that is common in our society.

평안하기를 빌라: 사도들은 자신들 부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가정 위에 강력한 축복을 풀어놓았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흔한 격식 없는 인사와는 다른 것이었다.

- K. **Let your peace return:** This spoke of taking back a special blessing from a household that decided not to stand with Jesus as pressure in their community rose up against them for hosting an apostle.

너희 빈 평안이 돌아오면: 이는 어떤 가정이 사도를 집에 들인 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반감이 커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도들의 특별한 축복을 거절하는 경우이다.

- L. **More tolerable for Sodom:** More severe judgment awaits the people in the Jewish towns who rejected Jesus in that generation than the judgment coming on Sodom (Gen. 18:20-19:28).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에 임한 심판보다 더한 심판이 (창 18:20-19:28), 그 시대에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 성읍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임하게 될 것이다.

1. To reject their message after it was confirmed by signs was a sin greater than the sin engaged in by the people of Sodom.

사도들의 메시지가 표적으로 입증된 이후에도 이를 거절하는 것은 소돔 백성들이 저지른 것보다 더 큰 죄였다.

2. The increasing severity was due to them rejecting God's revelation in Christ that was also confirmed by miracles. There are varying degrees of eternal judgment (Lk. 12:47-48).

심판의 가중된 것은, 그들이 기적으로 입증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영원한 심판에도 다양한 강도와 차이가 있다 (눅 12:47-48).

V. JESUS PREPARED HIS DISCIPLES FOR PERSECUTION (MT. 10:16-25)

예수님이 제자들을 핍박에 대해 준비시키심 (마 10:16-25)

- A. Jesus described the persecution that the disciples would experience and how to respond to it.

예수님은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핍박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셨다.

- B. This persecution came to pass during their ministry after Jesus' resurrection. This passage applies to their lives and the lives of believers throughout church history. The parallels to this passage in Mark and Luke are seen in context to Jesus' message on the end times (Mk. 13:9-13; Lk. 21:12).

이 핍박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에서 나타났다. 이 구절은 그 당시 제자들의 삶과 교회 역사 동안의 성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구절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며 전하셨다 (막 13:9-13; 눅 21:12).

¹⁶**Behold, I send you out as sheep in the midst of wolves. Therefore, be wise as serpents and harmless as doves.** ¹⁷**But beware of men, for they will deliver you up to councils and scourge you in their synagogues.** ¹⁸**You will be brought before governors and kings for My sake, as a testimony to them and to the Gentiles.** ¹⁹**But when they deliver you up, do not worry about how or what you should speak. For it will be given to you in that hour what you should speak;** ²⁰**for it is not you who speak, but the Spirit of your Father who speaks in you. (Mt. 10:16-20)**

¹⁶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¹⁷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¹⁸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¹⁹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²⁰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 10:16-20)

- C. **Sheep in the midst of wolves:** They need to be prepared for some who would seek to destroy them. How could such lovely message of hope confirmed with miracles be rejected by so many?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들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어떻게 이렇게 기적으로 확증되는 사랑스런 메시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거절할 수 있었는가?

- D. **Wise as serpents:** Jesus refers back to His people being as sheep (Mt. 9:36). Jesus called them not to be naive but to exercise good judgment without compromising God's word. This is a call to be cautious of others so to avoid falling into the hands of evil people who would harm them. To be "harmless as doves" means to have pure motives and intentions in our words and actions. In other words, shrewdness with integrity. Some people are harmful as serpents and as foolish as doves!

뱀 같이 지혜롭고: 예수님은 양 같은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마 9:36). 예수님은 그들이 미련하지 않되,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함 없이 좋은 판단을 내리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그들을 해할 수도 있는 악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다.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말과 행동에서 순결한 동기와 의도를 가지라는 의미이다. 즉, 이는 기민하되 진실하라는 말씀이다. 어떤 사람들은 뱀처럼 해롭고 비둘기처럼 미련하다!

- E. **Governors and kings:** There is no evidence the disciples appeared before governors and kings before the resurrection. Therefore, Jesus was speaking here of persecution after His resurrection. The apostles were brought before both Jewish and Gentile courts and authorities in the book of Acts (4:1-22; 5:17-41; 6:12-8:3; 12:1-19; 16:19-40; 21:27-28:31) and throughout church history.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제자들이 총독과 임금들 앞에 나갔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은 그분의 부활 이후의 핍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 사도들은 사도행전에서 유대, 이방인 법정과 권세자들 앞에 끌려갔으며 (4:1-22; 5:17-41; 6:12-8:3; 12:1-19; 16:19-40; 21:27-28:31), 이 일은 교회사를 걸쳐서 일어난 부분이다.

- F. **The Spirit of your Father:** The Lord helps defend His people in persecution, even in legal settings. When handed over to authorities to make a legal defense for their faith, they need not be anxious.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주님은 핍박 당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길 원하신다. 법정에서도 말이다. 그들은 믿음에 대해 권세자들 앞에서 법적인 변호를 하는 상황에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 G. Hostility will come from people's families too, not only religious and governmental authorities. Persecution intensifies as family members turn one another over to be put to death (10:21, 34-36).

적대감은 종교, 통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도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핍박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상황까지 가중되게 된다 (10:21, 34-36).

²¹Now brother will deliver up brother to death, and a father his child; and children will rise up against parents and cause them to be put to death. ²²And you will be hated by all for My name's sake. But he who endures to the end will be saved. ²³When they persecute you in this city, flee to another. For assuredly, I say to you, you will not have gone through the cities of Israel before the Son of Man comes. (Mt. 10:21-23)

²¹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²²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²³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마 10:21-23)

- H. **Hated by all:** Jesus prepared His disciples for coming rejection.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거절에 대해 준비시키셨다.

- I. **Flee to another city:** Jesus calls His people to endurance, but not to act with “foolish courage.”

저 동네로 피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인내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미련한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라고 하지는 않으셨다.

- J. Jesus described the implications of the persecutions (10:24-31).

예수님은 핍박의 결과에 대해 말씀하셨다 (10:24-31).

²⁴A disciple is not above his teacher, nor a servant above his master. ²⁵...If they have called the master of the house Beelzebul, how much more will they call those of his household! ...²⁸And do not fear those who kill the body but cannot kill the soul. But rather fear Him who is able to destroy both soul and body in hell. ²⁹Are not two sparrows sold for a copper coin? And not one of them falls to the ground apart from your Father's will. ³⁰But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³¹Do not fear therefore; you are of more value than many sparrows. (Mt. 10:24-31)

²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²⁵ ...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 ²⁸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²⁹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³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³¹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 10:24-31)

- K. **Called Beelzebul:** The Jewish leaders claimed that Jesus used demonic power to cast demons out of people. They were calling Jesus, “Beelzebul”—the ruler of the demons (Mk. 3:22-27).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악한 능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즉 악한 영들의 통치자로 불렀다 (막 3:22-27).

- L. **Fear Him who is able to destroy in hell:** The very worse that a person can do to you does not compare with what God will do to those who refuse His salvation and leadership.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우리에게 행하는 악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과 리더십을 거절하는 이들에게 행하실 일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 M. There are only two possible responses to Jesus' message (10:32-42). This reiterated what Jesus taught at the end of the Sermon on the Mount (Mt. 7:13-27).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오직 두 가지뿐이다 (10:32-34). 이는 예수님께서 산상 수훈의 마지막에 가르치신 내용을 반복한 것이다 (마 7:13-27).

³²Therefore whoever confesses Me before men, him I will also confess before My Father who is in heaven. ³³But whoever denies Me before men, him I will also deny before My Father who is in heaven. (Mt. 10:32-33)

³²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³³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 10:32-33)

- N. Jesus did not remove relational conflict in this age, but promised opposition (10:34). He taught that people must love one another, but they must love Him more. All relationships in this age will be tested, even family relationships.

예수님께서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관계적인 충돌이 없다가보다, 불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10:34).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해야 했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했다. 지금 시대의 모든 관계들은 시험을 겪을 것이며, 가족 관계조차도 그럴 것이다.

³⁴Do not think that I came to bring peace on earth. I did not come to bring peace but a sword. ³⁵For I have come to “set a man against his father, a daughter against her mother, and a daughter-in-law against her mother-in-law” ³⁶and “a man’s enemies will be those of his own household.” ³⁷He who loves father or moth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And he who loves son or daught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³⁸And he who does not take his cross and follow after Me is not worthy of Me. (Mt. 10:34-38)

³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³⁵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³⁶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³⁷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³⁸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 10:34-38)

- O. The Lord’s people must receive God’s messengers and stand together in difficulty (Mt 10:40-42).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영접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해서 안 된다 (마 10:40-42).

⁴⁰He who receives you receives Me, and he who receives Me receives Him who sent Me. ⁴¹He who receives a prophet in the name of a prophet shall receive a prophet’s reward. And he who receives a righteous man in the name of a righteous man shall receive a righteous man’s reward. ⁴²And whoever gives one of these little ones only a cup of cold water in the name of a disciple, assuredly, I say to you, he shall by no means lose his reward. (Mt. 10:40-42)

⁴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⁴¹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⁴²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 10:40-42)

1. By receiving His messengers, people receive Jesus and His Father. How a person receives His servants expresses their attitude toward the One who sent them. The disciples were righteous men who represented another righteous man, Jesus. The “little ones” in view of the context refer to the persecuted disciples who remain faithful to the Lord.

그분의 메신저들을 영접함으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그분의 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종을 보낸 이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 이 제자들은 또 다른 의인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의인들이었다. 여기서 “작은 자”는 문맥상 주께 충성스럽게 남아 있는 핍박받는 제자들을 가리킨다.

2. Anyone who assists one of them by giving him even a cup of refreshing cold water will receive a reward from God. Even the smallest act of kindness for one of Jesus’ disciples will not pass without God’s reward.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며 돕는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아주 작은 친절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상급을 주신다.